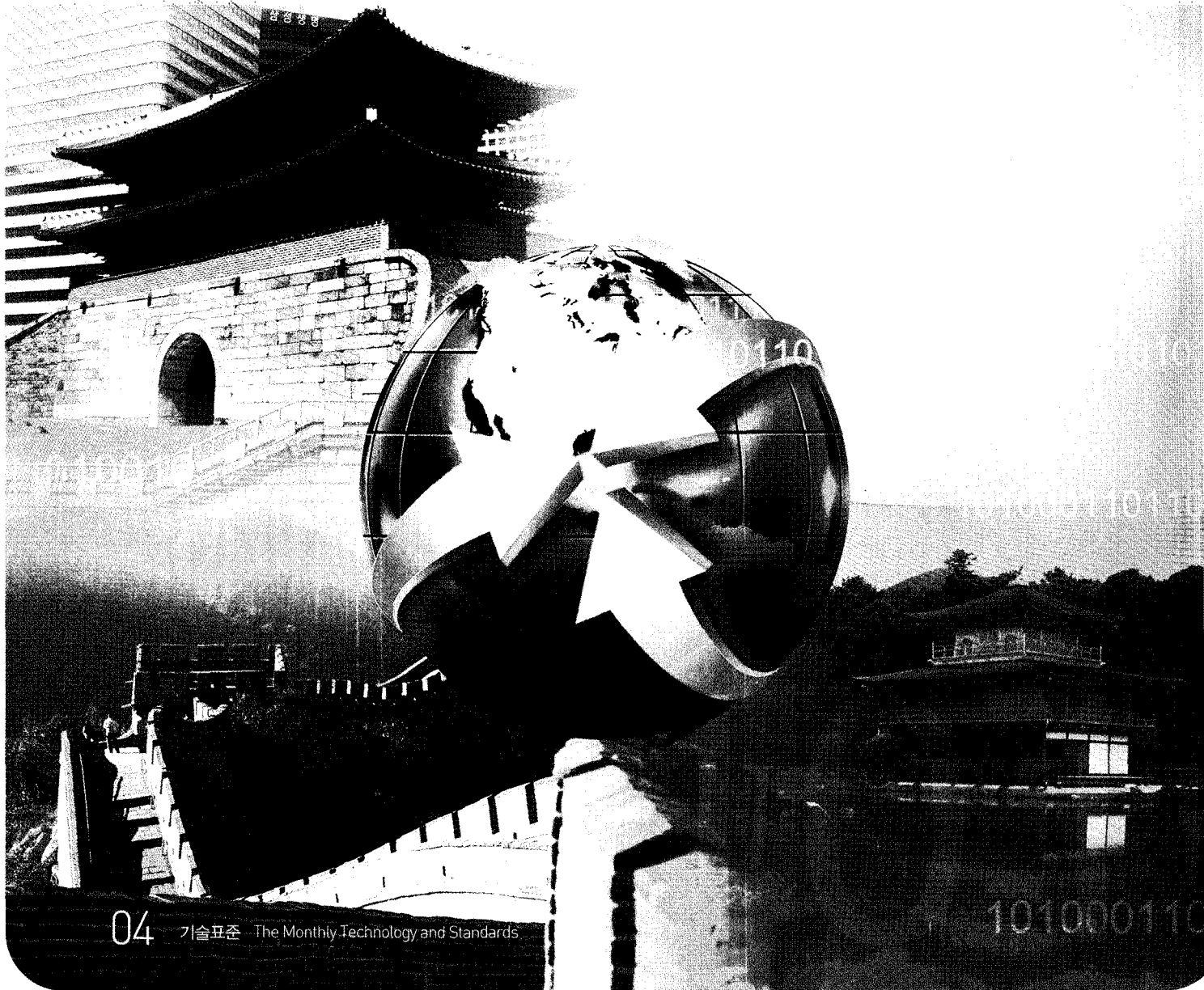


한·중·일 공통표준 제정의 의미와 과제

5월 29일 '한·중·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계기로 실질적 활동에 박차

한·중·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세 나라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과 제안을 위해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공통표준화를 연구하고, 정보와 전문가 교류, 동북아 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활성화하며,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기여도 향상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 가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지역적 표준협력을 넘어 세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인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서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역사적인 부침에 따라 침략과 공존이 엇갈리면서 반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상호 의존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최근 미국 중심의 세계화 추세로 인해 인접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킨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이다.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적 연대를 이루어 미국 중심의 전 지구적 세계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도 더욱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일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이유 등으로 인해 협력과 통합이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과 통합은 공동표준의 제정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5월 29일 제주에서 발표된 '한·중·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공동성명을 통해 동북아 세 나라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과 제안을 위해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표준화를 연구하고, 정보와 전문가 교류, 동북아 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활성화하며,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기여도 향상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동북아 삼국의 표준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세계화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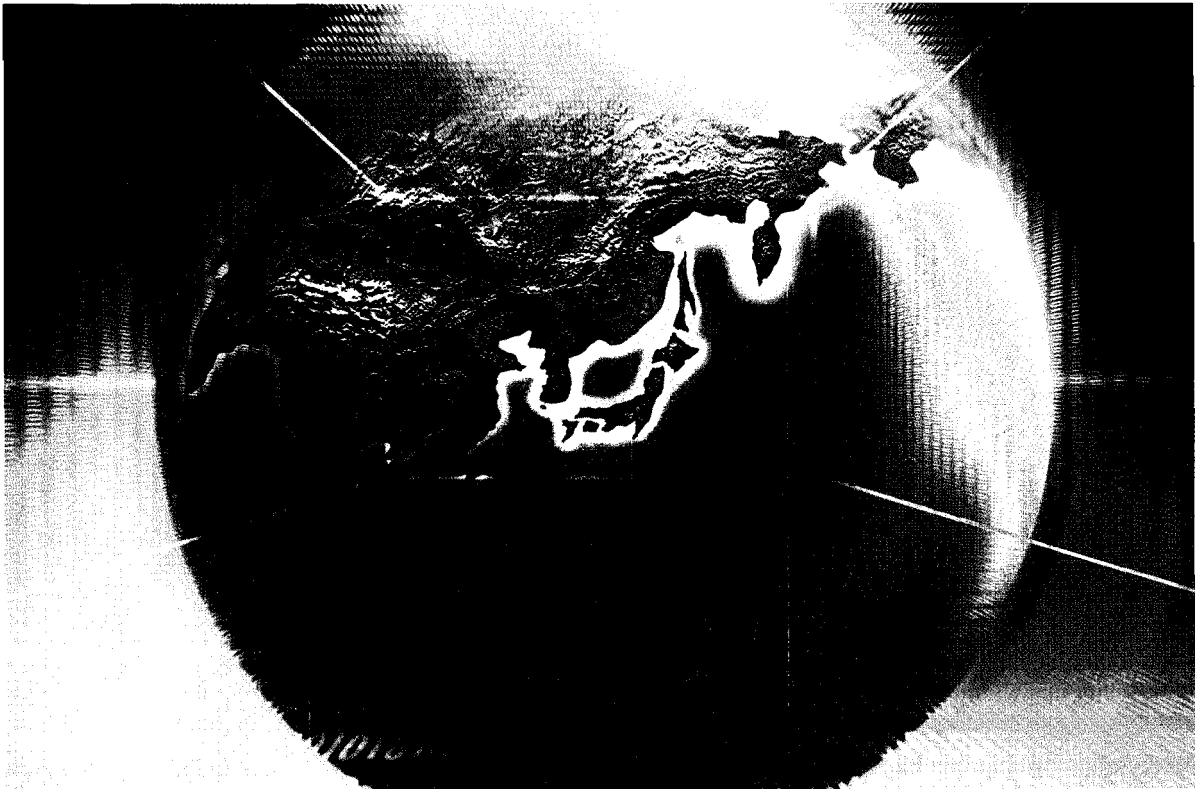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 표준화기구의 한계

사실 동북아 표준협력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되었다. IT표준협력회의를 비롯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2002년부터 시작해 벌써 아홉 번째를 거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삼국 공동성명은 국가정상급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며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발짝 진전된 협력인 셈이다. 더욱이 태평양 지역 표준화협의체(PASC) 총회를 2012년 여수에서 개최키로 한 것은 삼국 공동성명이 제주에서 이루어

진 것처럼 동북아 표준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를 계기로 기술표준원은 녹색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PASC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동북아 지역의 표준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PASC는 지역별 표준의 필요성 제거 외에도 국제 표준화기구들, 특히 유럽 중심적인 ISO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1971년에 결성되어 현재 2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질성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협력체로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실제 유럽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유럽표준화기구(CEN)와 달리 PASC는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태평양권에서 먼 국가들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





양 연안 국가들의 경우도 동서양을 포괄하는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PASC 조직은 총회(PASC meeting)와 사무국(PASC Secretariat) 및 상임위원회(SC: Standing Committee)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한·중·일 표준화 협의체와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추진

PASC의 업무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표준화 관련 국제활동에서 회원국들의 상호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들 간 표준화 관련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무역과 통상의 촉진을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조정하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고 이 기구들과 업무 협력을 수행하며, 그밖에 향후 국제표준화에 필요한 사항과 표준화 구조상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곧, PASC는 표준을 제정하고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표준화기구가 아니다. 그보다는 표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표준화 관련 회의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표준화와 관련해 PASC가 직접 수행하는 활동으로는 상임

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표준적합성소위원회(APEC/SCS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로부터 PASC와 관련된 특정 표준이나 적합성 기획과제를 제안 받았을 때 수행하는 작업이 거의 유일하다. PASC의 주요 전략은 국제표준화 기구의 전략과 움직임에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SO에서 태평양 연안국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총회와 병행해 PASC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 이는 지역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계화가 진행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지역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세계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장차 고령친화용품과 한자용어, 한의학과 관광서비스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감안한 분야, 공산품과 전기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는 산업 분야, 전기자동차 충전단자와 스마트 그리드, 교통카드 같은 신규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분야에서 한·중·일 공동표준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PASC의 한계는 전 지구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토대로서의 표준협력을 올바로 세워내기 위해서 동질성 수준이 높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표준협력을 먼저 강화한 후 PASC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 표준화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표준원이 PASC 총회에 앞서 한국, 중국, 일본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표준화협의체와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구성을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표준화를 주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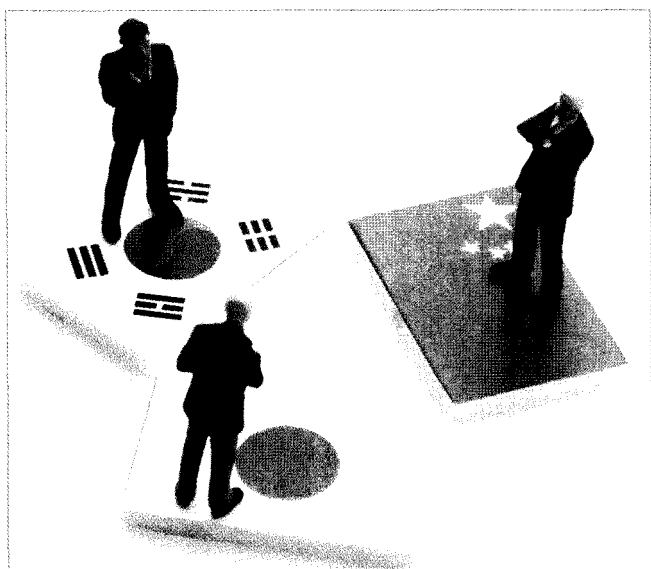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전 지구적 세계화에 대응해야

물론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그동안 각국이 제안한 다양한 표준화 의제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기술위원회를 만들어 개별표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총회에서도 매년 에너지효율, 서비스, 생활복지표준과 물류 등 특정 의제 한 가지를 선정해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함으로써 실질적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통해 삼국 공통표준의 제정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과 유럽이 선점하고 있는 국제표준 제정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아시아권으로 분산·이동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도 마찬가지로 미국·유럽 주도로 진행되는 국제적 기술과 표준경쟁에 동북아 삼국이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의미를 이 포럼에 부여하였다. 또한 포럼의 주요 사업으로 국제표준 공동대응, 공동활용 국제표준 세부지침 개발, 표준화기반 연구와 개발,

동북아 표준협력회의 순환 개최, 지역 표준협력체와 연계 추진을 들었다.

이러한 기대와 사업목표에 부응하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장차 고령친화용품과 한자용어, 한의학과 관광서비스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감안한 분야, 공산품과 전기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는 산업 분야, 전기자동차 충전단자와 스마트 그리드, 교통카드 같은 신규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분야에서 한·중·일 공동표준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지역적 표준협력을 넘어 세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중·일 세 나라의 동북아 지역 표준협력을 먼저 강화한 후 PASC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표준화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 글로벌표준으로 대변되는 전 지구적 세계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